

월링스, 통신용 배터리팩 2차분 납품 완료

- ▶ 4월 공급 계약 체결한 244억 원 규모 물량 전량 납품
- ▶ 배터리팩 수요 지속 증가 예상, 기업 볼륨 크게 확대될 것

<2020-07-06> 태양광에너지 리딩 기업 월링스(313760, 대표이사 안강순)가 지난 4월 공급 계약을 체결한 244억 원 규모의 통신용 배터리팩(Battery Pack)* 전량에 대한 납품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배터리팩 : 기지국 정전대비용 옥외형 배터리로, 통신사 기지국에 정전발생시 직류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

월링스는 지난해 12월 (주)갑진과 103억 원 규모의 배터리팩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신규 매출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 4월 2차 수주를 달성하며 외형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실제 244억 원 규모의 2차분 계약은 2019년 월링스 전체 매출액에 57%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제품은 (주)갑진을 거쳐 일본 내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 적용됐다. 기지국 건설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배터리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제 3차 공급 계약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링스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태양광 설비의 하반기 정상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 영역인 배터리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며 기업 볼륨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 자료문의 : 월링스 강성신 상무 031) 326-3095
IR큐더스 이진영 수석 02) 6011-2000(#138)